

‘자랑스런 이화인’에

김현자·박영숙씨 선정

이화여대(총장·張 裳)은 23일 제7회 자랑스런 이화인에 김현자(金賢子·73·사진 왼쪽)전 한국여성정치연맹총재와 박영숙(朴英淑·69)한국환경·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을 선정했다.

김 전총재는 국제의회연맹(IPU) 인권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등 국제적 활동을 통해 한국여성의 국제화



에 기여했고 박 소장은 13대 국회의원 재임시 남녀고용평등법, 가족법 개정 등에 애쓰며 여성문제를 정책화하는데 기여했다. 시상식은 31일 오전 교내 대강당에서 학교 창립 115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다.